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의 일환으로써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및 사회인 등을 초빙하여, '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 및 ' 포스트코로나의 지역재생사례' 라는 테마 아래 각종 시찰, 학교방문, 홈스테이,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한국의 대학생 및 사회인 등 9명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한국의 대학생 및 사회인 등 39명

【방문지】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도쿄도 (東京都) 9명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도쿄도 (東京都), 홋카이도 (北海道) 9명

【일정】

■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

9월 21일 (목) 프로그램 설명, 사전학습사항 전달,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

9월 29일 (화) 하네다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강의】 '최근의 한일관계'

9월 30일 (토) A 그룹 : 【교류】 '2023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부스운영참가를 통하여 일본의 일반 시민과의 교류

B 그룹 : '2023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취재

【시찰】 이수현 씨 추도 · 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10월 1일 (일) A 그룹 : 【교류】 '2023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부스운영참가를 통하여 일본의 일반 시민과의 교류

B 그룹 : 2023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취재

【시찰】 이수현 씨 추도 · 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10월 2일 (월) 홋카이도 하코다테시로 이동

【학교방문 및 동세대 교류】 홋카이도 교육대학 하코다테 캠퍼스: '한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과 대응' 을 테마로 의견교환, 나나에초(七飯町)로 이동

【교류】 홈스테이

10월 3일 (화) 앓사부초(厚澤部町)로 이동,

【시찰】 포스트 코로나의 지역활성화 사례: ‘세계 제일의 어린이원을 만든다’
 앞서부초 인정어린이원에의 보육원 유학, 【강의청강】 보육원 유학의 활동과 과
 소지역 재생·활성화에 대해서, 【교류】 홈스테이

10 월 4 일 (수) 홈스테이 해산식, 삿포로시로 이동,

【시찰】 야외박물관 ‘홋카이도 개척마을(北海道開拓の村)’, 성과 보고회

10 월 5 일 (목) 신치토세공항 출국

2. 기록사진



2023년 9월 29일 【예방·강의청강】
 ‘최근의 한일관계’ (외무성)



2023년 9월 30일 【교류】 ‘2023 한일축제한마
 당 in TOKYO’ 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
 하자’ 부스 운영(고마자와 올림픽공원)



2023년 10월 1일 【교류】 ‘2023 한일축제한마
 당 in TOKYO’ 에서 각종 취재 활동(고마자와
 올림픽공원)



2023년 10월 2일 【학교방문 및 동세대 교류】
 ‘한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과 대응’ 을 테마로 의견교환(홋카이도
 교육대학 하코다테 캠퍼스)



2023년 10월 3일 【시찰】 포스트 코로나의 지역활성화 사례: 보육원 유학(앗사부초 인정어린이원 ‘하제루’)



2023년 10월 3일 【강의】 보육원 유학의 활동과 과소지역 재생·활성화에 대하여(앗사부초 주민센터·役場)



2023년 10월 4일 【교류】 홈스테이를 마치고(호스트 패밀리분들과: 나나에초)



2023년 10월 4일 【성과보고회】 (삿포로시내)

3.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대학생

한일 양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인적 교류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이번에 다양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은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하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일축제한마당’에서의 일반 시민과의 대화나 홈스테이, 대학에서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한일은 정말로 비슷한 부분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도 공통된 것이 많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더욱더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싶고 우리 세대에서도 실천해 가고 싶다.

◆ 한국 대학생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닌 리얼한 일본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수많은 귀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에 관한 지식 역시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보육원 유학이라는 정책이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흥미로웠다.

◆ 한국 대학원생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부스 운영과 취재를 통해 홋카이도에서의 대학 방문과 의견교환에 홈스테이 등 한일의 인적 교류의 기회가 많아서 모두 대단히 인상에 남아 있으며 모두 너무 좋았다. 이번 방일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일본의 일반시민분들과 다방면에 걸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좀처럼 할 수 없는 질문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귄 수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한일의 젊은이끼리 협력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싶다.

◆ 한국 사회인

한국에서도 좀처럼 기회가 없는 보육원의 시찰이나 들어 본 적 없는 지방도시의 활성화 정책 등을 배울 수 있어 매우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또한 홈스테이 등을 통해 한국에는 없는 문화를 배울 수도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문화를 전할 수도 있어 좋은 교류 체험이 되었다.

4. 일본 측 소감 (발취)

◆ JKAF (대학생방한단 동창조직 : ‘한일축제한마당 2023 in Tokyo’ 에서 함께 부스 운영)

방일단 여러분과 지내면서 일본과 한국의 매력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의 취업준비의 차이나 양국의 핫 토픽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있어 서로의 나라의 다름에 놀라면서 새로운 발견이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제한마당의 부스 운영 ‘한국인과 대화하자’ 코너에서는 양국에 대한 질문이 난무해 방문하신 분들도 운영한 저희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홋카이도교육대학 하코다테 캠퍼스

이번에는 한국의 젊은이분들께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은 함께 공통의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어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부족 등에 대해서 한일의 젊은이들끼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어 양쪽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합니다.

◆ 홋카이도 오누마(北海道大沼)국제교류협회

홋카이도 교육대학에서의 미니 심포지엄, 앗사부초 인정어린이원 ‘하제루’의 시찰, 양쪽 모두 의미 있는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제루’에서는 주임보육교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즐겁다,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할 정도로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질문이 지금까지 시찰 오신 분들과 비교해서 대단히 답변한 보람이 있는 질문이었다고 느꼈습니다.

◆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일본어책을 사고 싶다’는 리퀘스트나 낫토의 맛의 차이를 안다는 등 일본의 역사, 문학,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지식이 상상 이상이어서 놀랐습니다.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과의 이문화 교류는 우리 집에 있어서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짧은 체재였지만 초등학교 딸은 떠나는 날 아침에 울면서 등교했습니다. 마지막의 편지는 저희도 게스트도 서로 준비했는데 교환할 때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 기사 등



2023년 9월 29일 (Instagram)
 (고 이수현씨 추도비를 시찰해서) 타인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는 남겨진 몇 만, 몇 십만, 몇 백만 명을 구원했는가. 쉽사리 답을 하지 못하고 질문만을 던지는 것은 아마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가,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는 얼마나 범인(凡人)인가, 나는 얼마나 소인(小人)인가.



2023년 10월 2일 (Instagram)
 홋카이도교육대학 학생들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전통 춤도 배웠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나 자료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나 지역별로 모이는 인구가 다른 이유 등을 파악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 춤도 배웠는데 활기찬 분위기가 기억에 남는다. 동작 중에 그물을 뿌리고 고기를 잡는 것 같은 바다, 어업과 관련된 동작이 많았다. 지역의 생활상과 특징이 춤에 녹아들어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はぜる

요즘 육아 세대가 바뀌면서 육아나 훈육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찰로 올바른 양육 방식뿐만 아니라 최적의 환경 조성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무작정 '안돼'가 아닌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하제루의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원 시찰이 단순히 교육 환경과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이전에 홋카이도 대학에서 의견교환 했던 저출산고령화와도 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 출생률 증가,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삶의 질 상승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미래가 보여서 이번 시찰이 정말 재미있었다

아무튼 하제루 같은 어린이원의 아이 중심 교육 방식이 한국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일본에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많이 봐서 너무 행복했다

글쓰기 어려워서 두서없이 적긴 했지만.. 감명깊었던 시간이었다 🍡

2023년 10월 3일 (Instagram, 발췌)
 요즘 육아 세대가 바뀌면서 육아나 훈육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찰로 올바른 양육 방식뿐만 아니라 최적의 환경 조성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무작정 안돼가 아닌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하제루의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원 시찰이 단순히 교육 환경과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저출산 고령화와도 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역 사회 발전, 출생률 증가,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삶의 질 상승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미래가 보여서 이번 시찰이 정말 재미있었다. 하제루 같은 어린이원의 아이 중심 교육 방식이 한국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人口減 日韓共通の課題」

訪日団 函教大生と意見交換



人口減少対策について意見交換をする韓国青年訪日団のメンバーと、函教大函館校の学生

「はぜる」を視察。参加者は人口減少は日韓共通の課題。新たな視座を築くきっかけになったと振り返っていた。

視察は外務省が行う対日理解促進プログラムの一環。今回は在日韓大使館が選出した大学生が番。9人が若くして、7人が地方の人口減少をテーマに各地で学んだ。

函教大函館校では、外国人労働者問題を研究している孔教授が講演。また、同教授の「地域プロジェクト」を講ずる同校の学生が外国へ労働者へ空の移動や進出の移住・産の取組事例を、訪日団のメンバーが韓国の少子高齢化の対応策をそれぞれ発表し、意見を交換した。

同校3年の水谷紀彦さん(21)は「韓国は生活の質の向上を目指して少子化の懸念を解消しようとしている。日本にこの考え方は必(必須)」と話し、訪日団の貿易担当員(ク・シウン)さん(25)は「大学生が対策をまじめに考えていて、韓国の人口減少問題についてさらに考えなければ」と思ったと話した。

厚岸町で同町の担当者が、首脳の子育て世帯が移住体験をしながら子どもを「はぜる」に通わせる制度を説明。2022年度には1500組の家族が制度を利用し、地帯への経済効果もあつたを紹介した。高麗大4年のナム・ジウギン(24)は「住国を移さず事實上移住する関係人といふ概念に、進出地の空を見たまじだ」と驚いていた。(石川聖和)

介護予防や運動教室講師派遣で連携協定七飯町とスポーツクラブ(七飯町)は、町長の健康増進とスポーツ振興を目的に、サン・スポーツクラブ(函館市石川町)と包括連携協定を締結した。同社代表が町役場を訪れ、9月26日締結式を行った。

同社が道南の自治体と協定を結ぶのは初。今後介護予防教室の開催や運動教室への講師派遣で協力を検討している。協定書(印刷した杉原大長は「子どもか

2023년 10월 6일 (홋카이도신문 조간 16면, 발췌)
 외무성이 실시하는 대일 이해촉진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한일본대사관이 선발한 한국의 대학생과 20대 사회인 9명이 홋카이도 남서부를 방문하여 나나에초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해 배웠다.
 홋카이도교육대학교 하코다테캠퍼스에서는 이 대학의 학생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홋카이도 내의 이주·정주의 대처 사례를, 방일단 멤버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대응책을 각각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앓사부초 내에서는 홋카이도청의 담당자가 수도권의 자녀양육세대가 이주체험을 하면서 자녀를 인정어린이원 ‘하제루’에 보내는 제도를 설명. 지역에 대한 경제효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 측 참가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이주하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에서 과소지의 미래를 보았다”며 놀랐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도쿄도, 홋카이도)

일본문화원리더십_9기_소감_방일단_방일단_방일단
방일연수 소감

정다인

과거부터 현재까지, 좋은 실은 관계를 맺어온 한일 양국이다. 다양한 활동 상황속에서도 인적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러한 측면들로 떠올리며 다시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8개월간의 강의를 다시금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에 감사한다.

전소현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는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특별한 기억을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에 힘을 실었다. 현재와 미래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곧 역사이며, 이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

김태한

사람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사람에는 희생, 존경, 감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용감 적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는 본래 우리가 어찌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와 다른 이들 사랑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 블로그, 유튜브 등 1회 교육 -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소감서 영상 제작 - 한일축제한마당 IN JALOUD 영상 	10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단 홈페이지 운영 - 방일단 행사 참가 - 방일단 홈페이지 운영, 한국인 사정남매에 문화교류 관련 글 게시 - 다양한 현장의 현장 기사 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일본 뉴스 스터디 개설 -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한 사전조사 - 지속적인 한일 교류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한일문화 교류 영상 제작 	12월	장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일본 뉴스 스터디 - 소규모 행사 개최 - 방일단 행사 참가 - 방일단 홈페이지 운영 관련 글 게시

방일연수 소감 **일본문화원리더십_9기_A_정다인, 전소현, 이혁진, 김태한**

정다인

한국과 일본은 옛날부터 교류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한일연년의 교류에 참가하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독해해 찾아오는 것이, 많은 노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약 일주일의 시간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기기를 나누며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혁진

미디어를 통한 단순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한 교류를 통해 실제 일본의 모습을 생생하게 배웠다. 다양한 세대에게 일본의 문화를 배우고 반대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모습을 통해 공감하며 유대감을 느꼈다. 현재 한일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일본문화리 리더로서 노력하며 나아가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전소현

한일축제한마당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교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느껴졌지만 상호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서로 통할 수 있었다. 여러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관대함 배려에서는 일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길 바란다.

김태한

일일대의 한국과 일본,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분명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방일 프로그램을 계기로 지금보다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일축제한마당에서의 일일교류는 정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았다. 홈페이지에서는 가족들에게 일본의 특별한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액션플랜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축제한마당, 상호문화 영상 제작 및 게시 - 홈페이지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교류 - 일본문화원 캐릭터 구성 	<p>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서 배운 일본문화(紙、民謡) 카드뉴스 만들기 - 일본 체험 및 일본 문화 탐방 - 방일단 체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및 블로그 게시를 하고
<p>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LPT N2 및 jpt 8500이상 취득 도전 - 일본 문화 영상용 촬영용 소스 게시(지속적 홍보) - 상호문화 체험을 활용한 카드뉴스 제작 - 일본문화원 캐릭터를 이용한 일본 문화 인스타그램 게시 	<p>장기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LPT N1반정 및 N2 취득 - JPT 7500 취득 - 일본어 문서 읽으며 공부 - 일본 문화 자막 없이 읽기

【방일 중의 배움】

수많은 일본의 일반시민과 교류하고 대화를 계속 함으로써 상호이해 및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많은 교류에서 배운 일본인, 각종 시찰에서 배운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활성화 등에 대해서 배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에 널리 알려져 주위의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한일관계에 공헌해 나가고 싶다.

【액션플랜】

① 3개월 이내에 실시

- 이번 방일단의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이나 기사를 작성하여 각종 SNS와 블로그 등에 널리 공개
- 다양한 일본어학습 실천(통번역·JLPT 등)
- 주 1회 일본 뉴스 스터디모임 개설

② 장기목표

- 한일교류의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널리 공유
- 앗사부초의 ‘보육원 유학’ 정책에 대해 상세한 조사 및 논문 제작

【방일 중의 배움】

다양한 교류와 시찰을 통해 지금 현재의 한일간의 거리는 별로 느끼지 않았으며 일본인의 정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동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다. 한일 간은 더욱 긍정적인 발전을 해 나가서 보다 친밀해질 수 있다고 느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한일축제한마당’ 부스를 일본의 젊은이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의 한일교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싶다.

【액션플랜】

① 3개월 이내에 실시

- 이번 방일단의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이나 기사를 작성하여 각종 SNS와 블로그 등에 널리 공개
- 이번에 만난 많은 일본인과의 교류를 계속
- JLPT 시험에 도전한다.

② 장기목표

일본어 능력을 키워서 일본어 원서로 일본에 관한 다양한 것을 배우거나 자막 없이 일본어 영화 등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